

한국형 전자상거래 시범서비스 개통

최근 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커머스코리아와 한국전산원이 주관하는 한국형 전자상거래 시험사업의 개통행사가 데이콤에서 있었다.

이번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커머스코리아는 "이번 시범서비스는 국내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술 경쟁력 향상과 국내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안전한 모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인증시스템, 지불시스템, 인터넷상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쇼핑몰과는 다른 인터넷상의 안전한 전자상거래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인터넷상점에서 상품들을 구경한 후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본

인이 소유한 신용카드를 인증받은 후, 지불서비스를 통하여 인증 및 암호화 단계를 거쳐 카드로 상품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이용한 결제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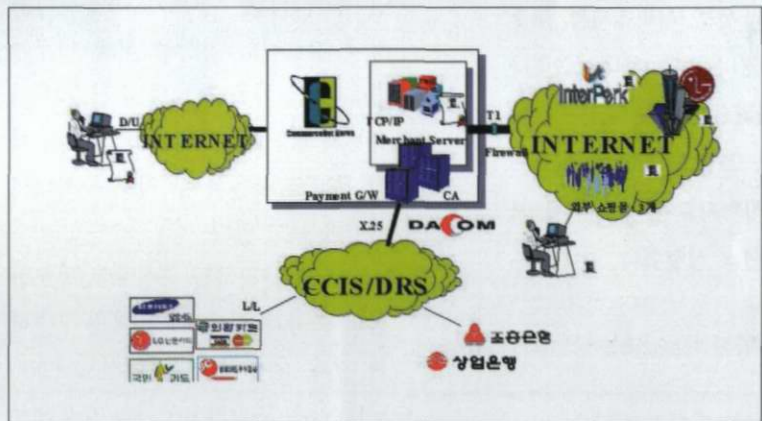
이번 시범사업 시스템 개발에는 데이콤을 비롯 엘지소프트, 대흥기획, 동성보통신, IBM 등이 참여했으

며, 특히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외환, BC, 국민, 삼성, LG 등의 5개 카드사와 조흥, 상업 등의 2개 은행이 참여한 점이 주목된다.

커머스코리아는 "이번 사업은 IC카드 전자화폐를 이용해 다양한 지불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며 음악, 기사정보, 그리고 게임 Digital Contents를 중심으로 전문상점 개발, 해외 전자상거래 연계 등 기능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시범서비스는 구축된 쇼핑몰시스템과 유통/배송시스템 연계, 추진 SET기반 구축 인증시스템의 국산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 확대, 적용 기존 시스템 환경을 활용한 Network형 인터넷 전자화폐서비스 구현, 국제간 전자시장 서비스 연계, 2002년 월드컵 및 부산 아시안게임을 위한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전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말까지 진행되는 시범서비스는 참여기관의 직원 및 공개 지원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시범적으로 참여한 이용자들의 반응 및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1월부터 상용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박민식 기자>



<그림> 한국형 전자상거래 시범서비스 흐름도